

어려움 겪는 농촌 활성화 모색

코로나19 영향 따라 농진청, 전국 농기원장 화상회의 열고 방안 마련



11일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이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농업기술원장들과 화상시스템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1일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농업기술원장들과 화상시스템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영농교육, 현장 기술지원 공백 해소와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대면 지도사업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기술보급 역량을 총동원해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김경규 청장은 각 기관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점검한 뒤, 현 상황에 맞

는 효율적인 농촌지도·기술보급 방안을 위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부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생진원, 입주기업 35개사 월 임대료 30% 감면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생진원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기관에 입주한 기업과 식당 등의 임대료를 30%씩 3개월 동안 감면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창업보육기업 15개, 입주기업 20개사 총 35개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예정이다.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에 해결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LX,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민 소독의 날' 방역 참여

지역상생과 균형발전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화)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LX는 11일 전북혁신도시 혁신동 일원에서 임직원 약 30여명이 참여해 '시민 일제 소독의 날'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한 이번 방역 활동은 혁신동 일원의 공원과 도로,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장소와 민간 사업장에서 실시했으며, 방역활동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매주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화 사장은 “매일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LX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 내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지난 2월 13일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경기활성화 도모

전, 모래내시장 등 찾아 위기극복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모래내시장과 신중양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일 실시한 송천동 농수산물시장과 전주남부시장 장보기 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장보기 행사에는 이선란 부행장과 이재원 부행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임직원들과 신중양시장 상인회 반봉현 회장, 이안열 모래내시장변영회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

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전북은행 임직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래내시장과 신중양시장을 두루 방문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100여개를 상인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이날 구매한 쌀, 과일 등의 식료품과 화장지, 이불 등 생필품은 8개 주민센터로 보내져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반봉현 신중양시장상인회 회장과 이

안열 모래내시장 변영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힘든 시기에 전통시장 찾아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6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이동식 구호급식차량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적십자 전북지사에 1억6000만원 상당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11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1억6,0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구호급식차량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된 이동식급식차량은 최신식 취사 설비와 자체 발전 시설을 갖춘 5t 특장 차량으로 전기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최대 5000인분의 급식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NH농협은행 장기요 본부장과 박병철 노조위원장, 이선홍 회장에게 구호급식차량 전달식을 갖고 향후 긴급구호 및 저소득·취약계층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1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1억6,0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구호급식차량을 전달했다.

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농협은행은 소외계층과 공감하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대한적십

자사 전북지사와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생명 나눔 헌혈·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체육시설·실험장비 필요할 땐 '공유누리'

행안부·조달청,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통합포털 개통

일반국민들도 행정·공공기관의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연구·실험장비 등 시설과 물품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6월에 사업에 착수해 오늘부터 온라인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포털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개통한다.

공유누리는 '공공자원을 개방해 누구나 자유롭게 누리다'의 의미로 국민 공모로 뽑힌 이름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인 포털 운영과 시설 및 교육프

로그램을, 조달청은 물품 부분을 운영한다.

공유누리에는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농기계 등 1만6천여 개의 시설·물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우스(ZEUS), 산업통상자원부 이튜브(e-Tube) 장비활용시스템 연계 등 8만여 개의 연구·실험장비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정부물품 공동활용 기능을 통해 유휴공간이 많은 물품, 각종 행사 물품, 컴퓨터, 모니터, 가구류 등의 물품을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다.

국민은 누구나 시설이나 물품 관련 단어를 입력하거나 지역을 설정해 지

도 기반으로 전국의 공공개방 자원을 예약할 수 있다. 그동안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개방자원을 안내하고 국민은 일부 예약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전화·방문 문의로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회원가입과 검색·예약 등 누리집 이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유누리에 게시된 동영상과 매뉴얼을 참고하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면 공유누리 상담센터(070-5224-0712)로 문의하면 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구장비와 고가의 실험장비의 개방을 확대하는 등 정부물품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해 예산을 절감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5부제 적용

우정사업본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 완료 약국과 동일하게 1주 1인 2매 판매... 가격은 150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지난 10일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매의 마스크가 판매되며, 판매 가격은 약국 등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마스

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2월 전북 비임금근로자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근로자는 감소... 실업률 전월비 하락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북의 2월 중 비임금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월 중 전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가 1만 7,000명(5.9%)이 늘어나 취업자는 90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00명이 증가해 고용률이 0.4%p 상승했으나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 대비 1만 5,000명이 감소해 실질 고용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전년동월 대비 도소매·숙박음식점업 6,000명(3.8%), 농업어업 5,000명(3.1%) 등은 증가했으나,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1만 2,000명, 1,000명이 줄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산업별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농림어업숙련자 7,000명(4.9%),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단순노무종사자 1만

4,000명(4.6%) 등은 증가했으나, 사무종사자 9,000명(-7.3%), 관리자·전문가 8,000명(-4.8%) 등은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수는 31만1,000명, 임금근로자수는 59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감소 중 일용근로자가 1만 3,000명(-19.6%)을 차지했다. 이는 건설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000명(1.9%) 증가한 24만명,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만9,000명(-4.3%) 감소한 62만7,000명,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 대비 2만7,000명(244%) 증가한 3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주당평균취업시간은 36.9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1.4시간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천명(-10.0%)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2.9%로 전년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국가 재난대응 치료병동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중증환자의 원활한 치료와 타 지역 복합질환 이송환자의 치료지원을 위한 '국가 재난대응 치료병동'을 운영한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 중증환자의 치료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지정응급의료법상 5일 외에 음압치료가 가능한 치료병실 7개와 중환자 병실 2개 등 총 9개 병실을 '재난대응 치료병동'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750여명을 넘어섰고 중증환자가 치료받을 병상 부족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국가적 재난 극복에 동참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교통분담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재난대응 중증치료병동에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 중 중증이상 질환자만 집중치료하게 되며, 대구경북 등 타 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합질환자들에 대한 집중치료도 실시한다.

병원에는 현재 도내에서 확진된 환자 2명과 대구·경북지역에서 이송된 5명 등 총 7명을 치료했으며 이 가운데 도내에서 발생된 환자 1명은 완치돼 퇴원했다.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의 유행 직후



부터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문객 전면 통제 △출입구 제한 및 손세정제 및 위생용품 비치 △발열감지기 도입 △선별진료소 운영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다.

또한 선별진료실에서 검사를 받은 의심환자에 대해 결과 확인 전까지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응급격리병동을 임시격리병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염 불안이 덜어내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는 일반환자와 호흡기질환 환자 모두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치료가 급한 위중한 환자를 위한 재난대응 중증치료병동을 운영 중이다”며 “우리병원의 의료역량을 총동원해 재난상황에도 환자안전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